

“오페라 극장에 와 있는 듯 한 무대”

29일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획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에 2023년 세계스카우트캠프버리 성공개최 기원 '세계로 떠나는 음악여행' 클래식 음악회를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공연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테너 이원용, 소프라노 이은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무대를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테너 이원용은 전북 부안출신으로 이탈리아 CONSERVATORIO DI OTTORINO RESPIGHI, 이탈리아 PESCARA 시립 음악원 오페라 과정 수석 졸업하였고, ALCAMO국제 콩쿨, OTTAVIANO ZZINO 국제 성악 콩쿨 입상, KBS 열린음악회 출연 및 오페라 다수 주역 출연을 했다. 또한 소프라노 이은희는 중앙대학교 성악과 수석 졸업, 이탈리아 F.Tonetracca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하였고 유럽 유명 국제 콩쿨 18개

부문 우승 및 입상, 세계 대가들과 유명 오페라극장 주역으로 활동 중에 있다.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유수영)은 부안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금년새의 지휘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매년 10회 이상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를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버 더 레인보우, 지금 이 순간, 오 솔레 미오, Granada, Espania Cari, Time to say goodbye 등 유명 오페라곡 및 영화음악곡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공연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마치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 와 있는 듯 한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져 오페라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환상적인 시간이 될 것이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우수공연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상주단체의 예술창작 역량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공연 시작전 30분 전에 선착순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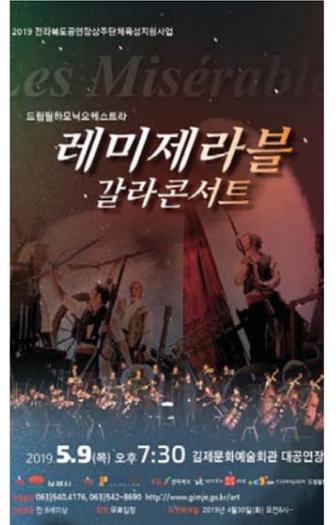


토(8세 이상 관람가)로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프랑스 혁명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

내달 9일 김제문화예술회관서 레미제라블 갈라 콘서트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5월 9일 오후 7시 30분 레미제라블 갈라 콘서트가 2019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첫 공연 무대를 펼친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 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제문화예술회관은 금년 한해 사)드림필과 함께 음악(오케스트라)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레미제라블 갈라 콘서트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성악가 4인(정발장: 테너 박진철, 자베르: 바리톤 김동식, 광탄: 소프라노 오현정, 에포닌: 알토 석선향)의 목소리와 드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영화와 뮤지컬에서 들을 수 있었던 수준 높은 음악들을 감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역사박물관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에는 진안역사박물관과 함께해요

진안역사박물관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월 문화가 있는 날은 24일 지역주민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압화 텀블러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상인은 물론 아이들도 감사의 설명을 듣고 자신만의 개성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어 박물관에 전시된 옛 진안의 생활도구를 설명하고 그 기능과 모양을 연계하여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며, 향토애를 기르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진안역사박물관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제도장 만들기, 풍선아트, 스트링아트, 네일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과 아동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모는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일과 후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내 고장 진안에 대해 돌아볼 수 있어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월 진안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진안군청 문화체육과(063-430-2382)로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부의 삶 예술적 영감 담아낸 '예술농부' 참여 예술인 공개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이 완주로컬푸드, 예술이되다 '예술농부' (이하 '예술농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예술인을 5월 14일 까지 공개모집 한다. 모집대상은 영상 또는 음악 분야 전문 예술인(단체)이며, 모집 규모는 총 6인(팀)이다. 3년차를 맞은 '예술농부'는 글, 사진, 영상 분야에 이어 올해 음악 분야를 추가하여, 농업과 예술이 결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제작

과 지속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완주 예술인과 외부 예술인을 매칭하여 지역 내·외부 예술인 교류를 통해 창작 시너지를 높이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예술농부' 콘텐츠 제작 참여 예술인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 이형규 前 전북 부지사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는 2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 이형규(65) 전 전라북도 부지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형규 신임 이사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행정부지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재임 시 동학농민혁명 최초 승전지인 황토현전적지(국가사적 제205호)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이사장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내실 있게 이끌어 나가고, 5월 11일 정부기념행사로 처음 열리는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